

<공연 포스터 이미지>

제주아트센터 개관9주년 기념 특별기획공연

Jeju 제주아트센터 Jeju Arts Center

반 클라이번 한국인 최초 우승자
피아니스트 선우예권 제주공연

클라라 슈만 탄생 200주년 기념
“나의 클라라”

피아니스트 선우예권의 손 끝에서 피어날
위대한 세 음악가의 삶과 사랑
반 클라이번 콩쿠르 한국인 최초 우승자
선우예권의 첫 장식 내셔널투어

C. Schumann Notturmo in F Major, Op.6-2
R. Schumann Fantasie in C Major, Op.17
J. Brahms Piano Sonata No.3 in F minor, Op.5

2019.5.17.(금) 오후 7:30 제주아트센터

입장료 R석 30,000원, A석 20,000원, B석 10,000원 (총액이제사만 가능 / 7세 이상 / 지정의석제)
예 매 제주아트센터 홈페이지 <http://www.jejuartscenter.com/index.do> / 티켓오픈 4.23.(화) 오후 2시
할 인 50% (A,3유족, 노인, 문화차 가정, 국가유공자 등) / 30% (문화사랑회원, 20인 이상 단체, 청소년 등)

제주아트센터는 도내 최대의 객석(1,184석)을 보유한 공연 공간으로 2010년 9월 개관하여 세계 30여회의 기획초청공연 및 200여회의 대안공연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라산과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쾌적한 주변 환경으로 예술인으로부터 사랑받고 있으며, 제주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의 064) 728-1509

참고자료

구 분	내 용
세계4대 음악콩쿠르	- 쇼팽 콩쿠르 - 차이코프스키 음악콩쿠르 - 퀴 엘리자베스 콩쿠르 - 반 클라이번 콩쿠르
빈클라이번 음악콩쿠르	- 1962년부터 4년주기로 열리는 콩쿠르는 미국의 피아니스트 반 클라이번 (1934~2013년)을 기념하는 대회. - 그동안 루마니아의 라두 루푸(1966년 우승), 독일의 크리스티안 차하리아스(1973년 준우승), 알렉세이 술타노프(1989년 우승), 올가케른(2001년 우승) 등을 입상자 배출
나의 클라라의 의미	- 브람스가 사랑했던 슈만의 부인 이름, <클라라>에서 선우예권이 정한 공연명
클라라 슈만	- 슈만의 부인 이름 : 클라라
로베르트 슈만1)	- 세계적인 음악사적으로 남는 작곡가
요하네스 브람스2)	- 세계적인 음악사적으로 남는 작곡가

- 1) (로베르트 슈만) 로베르트 슈만은 1810년 독일 작센 지방의 즈비카우에서 태어났다. 7살 때부터 음악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작곡에 재능을 보였다. 청소년기에 슈만은 출판업자이자 소설가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문학에 심취했다. 실러, 괴테, 바이런 등 위대한 시인들의 작품과 그리스 비극을 읽으며 문학적 감수성을 키웠다. 13살 때 <음악 미학에 관하여>라는 에세이를 써서 아버지가 간행하는 잡지에 발표 하기도 했다.
- 2) (요하네스 브람스) 요하네스 브람스(1833년 5월 7일 ~ 1897년 4월 3일)는 독일의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첼리스트, 바이올리니스트, 지휘자이다. 함부르크 출생. 오스트리아 빈에서 주로 음악가 생활을 했으며, 당대 낭만주의 음악의 선도적 존재였다. 일생동안 그는 높은 인기와 영향력을 가졌다.